빗줄기 헤치며 숲속 거닐다

천미천
삼다수숲길을 걷고 있는 참가지들. 강희만기자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⑩ 비자림로 입구~숲길~이덕구산전~표고밭길~천미천~양하밭~삼다수숲길~말찻오름~숲길~붉은오름휴양림 주차장

시안모루·북받친밭으로 불리는 제주4·3유적지 '이덕구 산전' 움막·무쇠솥 등 당시 생활 흔적

경쾌한 빗소리와 흔들리는 나무 말 없이 걷다보니 마주한 침묵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태풍을 하루 앞두고 많은 비가 내린다. 미끄러질까 조심히 발걸음을 내딛는 인간과는 달리 숲에 있는 나무들은 축제를 앞둔 군중들처럼 요란하게 몸을 흔들며 비를 온 몸으로 받아낸다.

6시간이 넘는 산행을 마무리한 순간에야 야속해 보이던 빗줄기가 경쾌하게 느껴지고, 나무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그들의 환호로 느껴졌다. '숲의 흥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한라일보의 '제10차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는 비자림로 입구에서 숲길~이덕구산전~표고밭길~천미천~양하밭~숲길~삼다수숲길~말찻오름~숲길~붉은오름휴양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됐다.

오름을 오르는 것보다는 경사가 없는 숲길을 걷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탐방객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길잡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10차 에코투어는 당초 7일로 예정됐지만,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취소됐다"며 "내일(22일) 제17호 태풍 '타파'가 또 다시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코스 자체가 안전하고 아직 바람도 강하지 않아 걱정할 것 없다"며 탐방객들을 다독였다.

우비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걷고, 천미천을 건너다 보니 불쑥 '이덕구 산전'이 나왔다.

이덕구 산전은 원래 제주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산으로 숨어 들었던 봉개리 주민 등이 살았던 곳이다.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이후 이덕구가 이끌던 무장대가 이 곳에 주둔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시안모루', '북받친밭'이라고도 불리며,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나 취사를 했던 무쇠솥 등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금이야 도로가 뚫려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깊은 산 속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무장대의 고난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졌다.

산전에는 이덕구를 기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글 옆에는 숟가락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이덕구의 시신이 군·경에 의해 십자형틀에 올려졌을 때 그의 앞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던 숟가락을 의미하는 듯 했다.

비를 맞으며 한 참을 걷다보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삼나무 숲 속에서 다같이 비에 젖은 도시락을 먹는다. 빗물에 밥맛이 떨어질까 허겁지겁 먹는데, 이덕구 부대도 이런 식으로 산 속에서 곡기를 달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표고밭길을 지나 양하밭에 도착했다. 누가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양하가 사방에 널려 있어 '밭'이라 불릴 만했다.

이권성 소장은 "당초 예정됐던 7일에 왔더라면 추석 명절 전이라 제사상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양하는 어차피 가을이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채취를 많이 해도 뿌리나 잎을 건들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삼다수숲길과 말찻오름, 다시 숲길로 이어지는 마지막 코스에서는 굵은 빗줄기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주위에 맴돈다. 빗소리에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몸도 지친 탓에 앞에서 걷는 사람의 발꿈치만 쫓아 걷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말 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니, 머릿 속에는 올해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 어느 순간에는 "그래 열심히 해야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탐방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를 대하 듯 서로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한편 오는 10월 5일 진행되는 제11차 에코투어는 1100도로~18림반~색달천~옛 표고밭길~망월악~샛오름~족은삼형제오름~한대오름~한라산 둘레길~18림반으로 이뤄진 코스에서 진행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이덕구 산전

양하꽃

으름난초

잣나비걸상버섯